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솔로몬군도

Solomon Islands

2021년 12월 13일 | 조사역(G3) 이승제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29천 km ² 	인구 70만명 (2021 ^e) 	정치체제 영국식 의원내각제 	대외정책 친서방정책 
GDP 16.5억 달러 (2021 ^e) 	1인당GDP 2,356달러 (2021 ^e) 	통화단위 Solomon Islands Dollar (SI\$) 	환율(U\$기준) 8.21 (2020) 

□ 솔로몬군도는 파푸아뉴기니 동쪽, 호주 북쪽 남서태평양에 위치한 군도(群島)국으로, 197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영국 여왕을 국가원수로 삼고 있는 영연방 국가임.

□ 근로자의 약 75%가 농업에 종사하는 등 경제구조가 단순하며, 제조업 기반은 대체로 취약한 상황임. 또한, 기후변화에 민감한 지역에 위치하여 연간 자연재해 관련 직·간접 비용이 높음.

□ 2019년 4월 총선 결과 소가바레(Sogavare) 전 총리가 2014년 이후 4번째로 총리로 선출되었음. 종족간 갈등으로 심화된 사회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2003년 호주를 중심으로 2017년 6월까지 솔로몬군도 지역지원단(RAMSI)을 파견하는 등 사회불안 요인도 내포하고 있음.

□ 최대 수출국이자 공여국인 호주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 9월에 기존 사회 전반에 걸쳐 원조자금을 지원받았던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새로 외교관계를 수립함.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78. 9. 15 수교 (주 파푸아뉴기니 대사 겸임)

주요협정 어업협정('80), 무상원조협정('12)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8	2019	2020	주요품목
수출	23,102	49,494	37,183	석유제품, 건설광산기계, LPG 등
수입	9,751	9,966	11,040	목재류, 수산가공품, 기타섬유제품

해외직접투자현황(2021년 6월말 누계, 총투자기준) 6건, 33,797천달러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e
경제성장률(%)	5.4	3.9	1.2	-4.3	1.2
GDP 규모(억 달러)	14.6	15.7	15.8	15.6	16.5
소비자물가상승률(%)	0.5	3.5	1.6	3.0	2.4
재정수지/GDP(%)	-3.4	0.9	-1.5	-2.4	-2.8
경상수지(백만 달러)	-62.8	-47.8	-154.0	-25.1	-
경상수지/GDP(%)	-4.3	-3.1	-9.8	-1.6	-
상품수지(백만 달러)	5.9	6.6	-36.4	-25.3	-
상품수출(백만 달러)	468.0	536.0	460.9	378.7	-
상품수입(백만 달러)	462.1	529.4	497.3	404.0	-
외환보유액(백만 달러)	537.6	580.3	529.1	655.1	-
총외채(백만 달러)	376.7	323.5	350.6	-	-
총외채잔액/총수출(%)	59.3	44.7	54.7	-	-
D.S.R.(%)	3.9	5.1	2.2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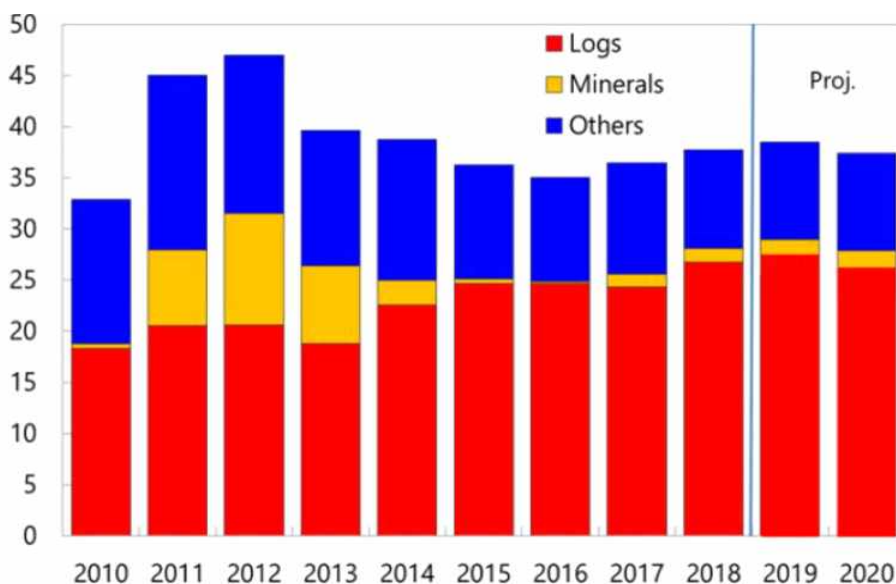
자료: IMF, EIU

구조적취약성

지속 불가능한 벌목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

- 솔로몬군도는 국토의 약 80%가 숲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국 식민지 시절인 1930년대 영국 왕실 영지(Crown Land)의 숲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시작된 벌목업은 농업과 함께 솔로몬군도의 주요 산업으로 발전해옴. 1980년대 후반 외국인 소유의 벌목회사와 관습법상 토지소유자들의 벌목업에 대한 상업적 접근이 본격화됨.
- 그 결과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벌채량은 연평균 15% 증가하여 2018년 기준 GDP의 약 10%, 정부 수입의 22% 및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등 솔로몬군도 경제를 사실상 견인하는 산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노동인구의 절반이 직·간접적으로 벌목업에 종사하는 과도한 단일산업 의존도를 보이게 됨. 과도한 벌목으로 환경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며 농업, 어업 등 다른 주요 산업분야에도 피해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큰 것으로 나타나 현재 벌목업의 지속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 World Bank에 따르면 솔로몬군도는 지속 가능한 산림벌채율의 17배를 넘어서는 무분별한 벌채율을 기록함. 이로 인해 삼림 황폐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속도를 유지할 시 수확 가능한 목재의 고갈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중앙정부는 2023년까지 벌목 규모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건 지속가능계획의 추진에 따라 더 이상 새로운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고, 불법 벌목 단속을 시행하며 벌목업 축소를 추진하고 있음. 한편 2021년 5월 미국 목재 선물가격이 1년 새 400% 상승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목재 수급 불균형 현상으로 목재 가격이 상승하자 일시적으로 불법적인 벌목이 성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이후 일어난 목재 가격의 폭락과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벌목업의 규모는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임.

솔로몬군도 GDP 대비 산업별 수출 비중(%)



자료: IMF 2019 Article IV Consultation

구조적취약성

- 정부는 별목업을 대체할 산업으로 광산업, 농업, 어업, 관광업 등 비교적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노력을 진행 중이나, 기존 별목업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리적 환경

- 솔로몬군도는 남태평양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 특성상 열대성 폭풍인 사이클론,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에 자주 노출되고 있으며, 지대가 낮아 사이클론이 닥치면 홍수나 높은 파도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막심한 편임.
- IMF는 솔로몬군도를 '자연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제 자연재해 데이터베이스 'EM-DAT'에 따르면 1980~2016년 사이 솔로몬군도가 자연재해로 입은 가장 큰 피해는 당시 GDP의 14%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IMF 외채지속가능성 분석보고서(DSA)는 그러한 피해가 2020년에 일어났다고 가정할 시 경제성장률을 2.5%p, 수출을 7.0%p 감소시켰을 것이라고 추정함.
- 2020년 4월 발생한 사이클론 '해롤드'는 농작물과 주택에 큰 피해를 입혀 솔로몬군도 주민의 약 9%인 5만 9천여명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음. 중앙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선포했던 2주 간의 공공비상사태를 '해롤드'로 인해 4개월 연장함.
- 아울러 UN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빠르게 진행되어 솔로몬군도와 같은 태평양의 섬나라들이 겪는 폭풍과 홍수로 인한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IPCC Special Report on the Ocean and Cryosphere in a Changing Climate

부실한 인프라의 개선 필요

- 솔로몬군도는 별목업, 농업 등 1차 산업과 천연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국가 전반적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경제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음. World Bank의 세계개발지표에 의하면 솔로몬군도의 식수 접근율은 68%(2020년), 인터넷 사용자 비율은 12%(2017년)로 각각 세계 평균인 90%, 46%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또한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로 제조업 기반 역시 매우 부실한 수준으로 파악됨.
- 2023년 퍼시픽게임(Pacific Games)의 개최지로 솔로몬군도의 수도 호니아라가 선정되면서 정부는 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필요 시설들과 필수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음. 또한 솔로몬군도의 전기요금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으로 국민들이 전기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했으나, 현재 진행 중인 티나 강 수력발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전기요금을 큰 폭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정부가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만큼 추후 적극적 투자 유치를 통한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성장잠재력

풍부한 광물자원 매장량을 바탕으로 광산업 발전 기대

- 솔로몬군도는 광물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으며, 특히 니켈의 경우 군도 내 이사벨 주(Isabel Province)에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넓은 니켈 매장지가 분포되어 있음. 니켈과 보크사이트는 채굴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주력 수출 광물이며, 추가적인 광산 개발을 위한 외국인직접투자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IHS Markit은 중장기적으로 광산업이 솔로몬군도의 국가경제에서 별목업의 지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홍수로 인해 2014년 폐쇄되었던 유일한 금 광산인 Gold Ridge 광산의 재개발 사업도 진행 중이며,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일정이 연기되었으나 2022년 하반기에는 금 채굴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새로운 수출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임.
- Gold Ridge 금광은 한때 솔로몬군도 GDP의 20% 이상을 차지한 적이 있는 주요 광산으로, 채굴이 재개된다면 광물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금, 니켈, 보크사이트 광산의 개발을 통해 경제구조를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각종 규제와 열악한 사업 환경이 개발 효율을 저하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정책성과

강력한 방역 정책을 통한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

- 솔로몬군도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 직후인 2020년 3월부터 지금까지 강력한 국경 봉쇄 조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집단 감염 사례도 확인되지 않음. 이와 달리 인접국들인 피지와 파푸아뉴기니는 코로나19 감염자 수 폭증으로 의료체계가 마비되는 등 통제 불가능 상황에 놓인 바 있어, 솔로몬군도 정부가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정부의 강력한 봉쇄정책이 외지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과 이주 노동자들까지 입국을 금지해 2020년 GDP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부작용을 낳음. 또 야당은 봉쇄조치에 대해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전파되는 것을 성공적으로 막아낸다는 본래의 목표를 달성한 덕에 봉쇄 조치와 관련한 국민들의 저항은 적었음.

반부패 정책 추진을 통한 경제성장 기대

- 부정부패는 솔로몬군도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정치인들에 대한 경제인들의 후원 네트워크가 발달되어 정경유착이 고착화되어 있음. 소가바레 현 총리는 과거 부총리로 재임하던 때부터 부패 척결을 기조로 내걸고 원조 수혜액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입법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음. 향후 소가바레 총리가 적극적인 부패 척결 정책 추진에 성공한다면, 원조 수혜액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경제개발 효율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치안정

잡은 정권교체 속 2019년 4월 소가바레 총리 4번째 취임

- 솔로몬군도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은 편으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8번의 총리 교체를 겪어옴. 소가바레 현 총리는 2019년 4월 총선 및 총리 선출 투표 결과에 따라 선출되었으며, 이전에도 세 번 총리로 당선되어 현재 본인의 네 번째 총리 임기를 수행하고 있음.
- 소가바레 총리는 직전 총리직 수행 당시(2015~17년) 임기의 절반인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불신임투표로 퇴출된 바 있으며, 이번에도 2023년까지의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함.

정부의 친중 노선에 대한 반발로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 발생

- 2021년 11월 소가바레 총리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수도 호니아라와 가장 인구가 많은 말라이타 섬을 중심으로 발생함. 시위는 소가바레 총리가 2019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공식적으로 수교한 후 계속해서 친중 노선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을 계기로 일어났으며, 친대만, 친서구 성향이 강한 말라이타 섬에서 시작되어 수도 호니아라로 번져나감.
- 시위대가 국회 건물과 경찰서를 공격하고, 차이나타운에 방화와 약탈을 저지르는 등 폭력시위로 번져가자 솔로몬군도 정부는 외출 금지령을 내리고 호주와 뉴질랜드에 평화유지군 파견을 요청함.
- 대만과의 단교 이후부터 이어져 오던 친중 성향의 중앙정부와 친대만 성향의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 본격화되어 시위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이며, 그 외 만연한 청년실업 문제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경제활동 제한 등 국내문제에 대한 불만 역시 시위가 격화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됨. 소가바레 총리는 시위대의 퇴진 요구에 대해 시위 배후에 외국 세력이 있으며, 자신은 퇴진 의사가 없음을 밝혀 추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사회안정

중앙정부와 말라이타 주 정부 간 관계 악화

- 말라이타 주 정부는 대만과 서방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왔으며, 중앙정부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려는 조짐을 보일 때부터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옴. 2019년 9월 실제로 대만과의 단교와 중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지자 말라이타 주 내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반발이 심화되어 2020년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음.
- 말라이타 주는 호주와 미국 등 서방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으며, 미국은 솔로몬군도 내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20년 말라이타 섬에 2,500만 달러의 원조를 약속함.

사회안정

Moody's는 솔로몬군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를 5등급(Very Highly Negative)로 평가

- 신용평가기관 Moody's는 솔로몬군도가 매우 높은 기후·환경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과 무분별한 천연자원 착취에 따른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 정치·사회적 불안정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5등급(Very Highly Negative)로 평가함.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2021.1월 Moody's 발표 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1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8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5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20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7개국 중 65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ESG 평가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환경)** 솔로몬군도는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지리적 특징 탓에 사이클론,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특히 심각한 수준임. 또한 대다수의 경제활동인구가 삼림업, 농업, 어업 등 천연자원을 이용하는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경제구조 역시 그러한 산업들에 의존적임. 현재 솔로몬군도 경제의 높은 천연 자원 의존도와 향후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무분별한 삼림 벌채로 인한 국토 황폐화로 인해 솔로몬군도 내 기후·자연과 관련된 위험이 더욱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 환경 영향은 5등급(Very Highly Negative)으로 평가됨.
- **(사회)** 도로와 교육, 전기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빈곤층 비율이 높고 빈부격차 역시 큰 편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회 영향은 4등급(Highly Negative)으로 평가됨.
- **(지배구조)** 군도 국가라는 한계 때문에 중앙정부의 행정적 영향력이 약하며 World Bank가 집계하는 World Governance Indicator 지표가 악화되고 순위가 하락했다는 점을 고려해 지배구조 영향은 4등급(Highly Negative)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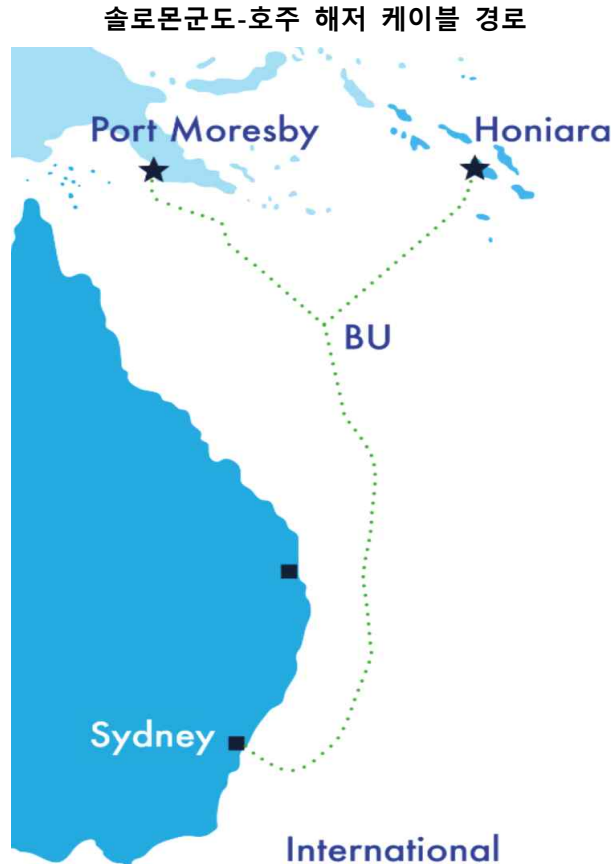
국제관계

최대 원조공여국인 호주와 긴밀한 관계 유지

- 솔로몬군도는 호주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호주는 현재까지 솔로몬군도의 최대 원조 공여국임. 2019~20년 솔로몬군도에 대한 호주의 공적개발원조(ODA) 금액은 약 1억 2천만 달러(US\$)*이며, 호주는 인적자원 개발, 경제 성장, 사회 안정성 확립을 주요 목표로 원조를 진행 중임.

*호주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 두 국가는 안보 분야에서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2017년 6월 양국 간에 체결된 양자 안보 협약에 따라 호주는 솔로몬군도로부터의 요청이 있을 시 신속한 파병을 보장함.
- 호주는 2019년 8월 호주와 솔로몬군도를 잇는 4,700km의 해저 케이블 건설을 완공해 솔로몬군도 국민들이 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같은 해 9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솔로몬군도의 인프라를 개발할 수 있는 10년 계획의 투자 프로그램을 발표해 두 국가의 관계는 앞으로도 긴밀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 Solomon Island Submarine Cable Company Limited

국제관계

2019년 9월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외교관계 수립

- 소가바레 총리는 2019년 9월 지난 36년 간 지속해온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종료하고, 대신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함. 중국은 대만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남태평양에 군사거점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솔로몬군도와 다른 남태평양 국가들에 꾸준히 접근해 왔으며,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솔로몬군도의 입장에서는 대만보다 중국을 선택하는 것이 실리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인 2017년 말 기준 솔로몬군도와 중국 간의 무역규모는 27억 달러, 대만 및 미국과의 무역규모는 각각 1.7억 달러 및 1300만 달러 수준으로, 중국과의 무역이 솔로몬군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음.
- 솔로몬군도는 2019년 9월 중국과 공식 수교하는 동시에 중국과 일대일로 협약을 체결함. 이에 따라 향후 중국 정부 및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어 경제발전의 가속화가 기대되나, 동시에 솔로몬군도 경제가 중국에 완전히 예속될 위험이 존재함.
- 중국은 수교 35일 만에 Gold Ridge 광산의 재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정부와 접촉해 과거 영국과 일본이 군항으로 사용했던 툴라기 섬의 75년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하려다 솔로몬군도 중앙정부에 의해 무산되는 등 빠른 속도로 이권 획득을 위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음.

외채상환태도

외채상환 관련 지표는 적정 수준이나 향후 관리가 요구됨

- IMF는 2021년 솔로몬군도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을 11.4%로 예상함. 또한 확인 가능한 최신 지표를 기준으로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은 13.6개월 수준(2020년 말), D.S.R.은 2.2%로(2019년 말) 외채 관련 지표가 양호함.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모두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2023년 개최를 앞둔 Pacific Games과 관련된 대형 인프라 투자가 늘고 있어 채무상환 위험이 존재함에 따라 외채상환능력의 관리가 요구됨.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Moody's	B3 (2019.10.)	B3 (2017.10.)

주요 신용평가 기관 중 Moody's만 신용등급 부여

- Moody's는 2019년 10월 낮은 공공채무 규모와 주변국들의 원조를 통한 발전 가능성 등 긍정적 요소와 지속 불가능한 목재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 등 부정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솔로몬군도에 대해 기존 신용등급인 B3을 유지함.

- 솔로몬군도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교역 감소 등으로 역성장을 기록했으나, 2021년에는 중국으로의 농산물 수출 증가 등을 통해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보임.
- 솔로몬군도의 주력 산업인 벌목업은 지속 가능성이 낮고 그로 인한 환경 파괴가 심각해 국가 차원에서 규모를 축소 조정 중이며, 광업, 농업, 관광업 등 잠재력 있는 다른 산업들이 아직 벌목업을 대체할 만큼 성장하지 못함.
- 정치적 안정성이 낮으며 총리 불신임투표를 통한 정권 교체가 자주 일어남. 2019년 선출된 소가바레 총리는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는 등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발로 2021년 11월 말 반정부 폭력 시위가 발생함.
- 확인 가능한 외채 관련 최신 지표들이 양호하고 중국, 호주, 미국 등 주변국과 국제기구의 원조 공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 외채 관련 위험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나, 경제규모가 매우 작고 대외 의존도가 높아 외부요인에 대한 대응능력이 취약함.